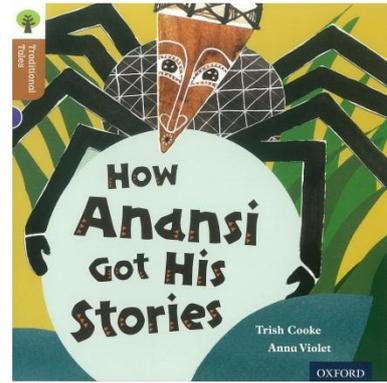




Stage 8



8 단계 "아난시가 이야기의 왕이 된 사연"

트리쉬 쿡 지음

애나 바이올렛 그림

이야기에 대하여

트래디셔널 테일즈는 오랜 세월을 걸쳐 전해 내려오는 전래동화입니다. 아난시는 아프리카와 캐리비안 지역의 옛날이야기 속에 자주 등장하는 인물입니다. 그는 다른 동물들을 이기기 위해 속임수를 사용하는 사기꾼입니다. 시대를 넘어서 전해지는 이 이야기를 아이들과 함께 반복해서 나누어 봅시다.

함께 읽기를 위한 가이드

함께 말하기

- 책표지를 보고 함께 제목을 읽어보세요. 아난시는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다른 동물들을 속이기를 좋아하는 거미라는 것을 설명해주세요.
- 2와 3 페이지를 읽고, "아난시가 다른 동물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 어떤 방법으로 할 수 있을까?" 하고 물어보세요.
- 사기꾼이 나오는 이솝우화 예를 들어 토끼와 거북이 또는 바람과 태양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지 물어 보세요.

이야기 속 단어들

- 아이들은 이 책에 나오는 대부분의 단어를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deadliest, fiercest, laughed, poisonous, calabash, whether

- 아이들이 이 단어들을 소리 내어 읽고, 문장 안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필요하다면, 아이에게 이 단어들을 읽어준 뒤, 뜻을 설명해주어도 좋습니다.

이야기를 읽으면서

- 읽기 능력 향상을 위해, 아이에게 이야기를 읽어달라고 해보세요. 아이는 한 챕터 이상을 읽을 수도 있습니다.
- 이야기에 쓰이는 표현을 알려주세요. 옛날이야기라는 것을 짐작하게 할 수 있는 표현을 알려주세요. 예) A long, long time ago...
- 서술적인 표현들이 어떻게 사용되는 지 살펴보세요. 예) shouted, chuckled
- 아이가 책을 읽으며 많은 표현들을 익힐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표현에 덧붙여진 구두점 에 유의하며 다시 한 번 큰 소리로 책을 읽어보세요.
- 중요한 문장은 의미에 유의하여, 반복해 읽어보세요.

아이들을 많이 칭찬하여 책을 계속 읽게 해주세요!

1 과

P2)

옛날 옛적에, 모든 이야기는 하늘의 신 냐암에서 전해졌어요. 사람들은 온종일 그 주위에서 맴돌았고 그가 말하는 것을 들었어요. 아난시라는 거미는 냐음을 질투했어요. 아난시는 사람들이 자기에게 와서 자기 말을 대신 듣길 원했어요.

“난 모든 이야기를 갖고 싶어요. 이야기의 왕이 되고 싶어요!” 라고 아난시는 말했어요.

P3)

“좋아” 냐암이 말했어요. “네가 만약 불과 같은 끈을 가지고 있는 말벌과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레오파드 그리고 독침이 있는 스네이크를 내게 가지고 온다면 넌 이야기의 왕이 될 수 있어.”

아난시는 말벌, 레오파드, 스네이크가 숲 속에서 가장 위험한 존재이고 잡기 어렵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난시는 왕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동의했어요.

“그래 해볼게!” 아난시는 말했어요.

P4)

아난시는 두려웠어요. “어떻게 저 세개를 잡아서 나암에게 갖다 주지!” 그는 생각했어요.
“나는 강하지도, 사납지도 않아. 그리고 난 용감하지도 않고...” 혼자서 말했어요.

2 과

P5)

아난시는 아이디어가 생겼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용할꺼야. 내 지혜와 영리함으로 그것들을 잡아버리겠어!” 아난시는 웃으며 호리병에 물을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그만의 방법으로 말벌이 살고 있는 큰 나무를 향해 갔어요.

P6)

아난시는 바나나 앞에 호리병에 있는 물을 좀 부어 말벌 머리 위로 쏠 수 있게 잡고 있었어요.

P7)

말벌이 흠뻑 젖었을 때, 아난시는 나무를 타고 올라가 거미줄 위에 앉아서 바나나 잎을 통해 물을 부었어요. 거미줄에 있는 모든 말벌들이 다 젖을 때까지 계속 물을 부었어요.

P8)

“비가 와! 비가 와!” 말벌들은 소리 질렀어요.

“와서 내 호리병 속에 숨으렴!” 아난시가 외쳤어요.

“여긴 멋지고 건조해!”

말벌들은 그들의 젖은 거미줄에서 떠나,

P9)

아난시의 빈 호리병으로 날라갔어요.

모든 말벌들이 아난시의 호리병 속임수에 넘어갔을 때, 아난시는 재빨리 바나나 잎으로 구멍을 막고 말벌들이 나갈 수 없게 했어요.

“잡았다!” 아난시는 웃었어요.

3 과

P10)

아난시는 나암을 만나러 뛰어갔어요.

“잡았어요!” 아난시가 노래했어요. “내가 말벌들을 잡았어요! 내 능력으로 그들을 잡았다구요! 난 이야기의 왕이 될 자격이 있어요.”

“하지만 표범과 뱀을 데리고 오지 않았어.” 라고 나암이 말했어요.

“그래서 넌 내 이야기를 가질 수 없어.”

P11)

“안돼” 아난시는 생각했어요. “잊어버릴 뻔 했구나. 크고 날카로운 이빨을 가진 표범과 독침을 갖고 있는 뱀을 잡아야 해. 어떻게 해야 하지? 나는 강하지도, 사납지도 않아. 그리고 난 용감하지도 않고...” 혼자서 말했어요.

4 과

P12)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용할꺼야. 내 지혜와 영리함으로 그것들을 잡아버리겠어!”

아난시는 킬킬댔어요.

아난시는 큰 삽을 가지고 표범이 낮잠을 자기를 좋아하는 나무를 찾아 갔어요.

P13)

표범이 있는 곳과 멀지 않은 곳에서, 아난시는 조용히 땅을 파기 시작했어요. 아난시는 정말 큰 구멍을 만들 때까지 더 깊이 더 깊이 팠어요. 풀과 가지들로 구멍 위를 덮었어요.

P14)

표범이 저녁 산책을 하기 위해 풀들 사이에서 나왔을 때, 풀과 가지들과 잎들로 덮혀 있던 구멍 위를 걸었어요.

15)

턱! 표범이 떨어졌어요. 아난시는 큰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어요.

“내가 도와줄게!” 아난시는 구멍 안으로 소리쳤어요.

“내 거미줄을 잡아. 내가 끌어 올려줄게.”

P16)

“고마워!” 표범은 말했어요. 그리고 아난시의 거미줄을 잡았어요.

그런데 아난시가 표범을 끌어 올렸을 때 표범은 거미줄에 엉키고 말았어요. 표범은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잡았다!” 아난시는 웃었어요.

5 과

P17)

“나가게 해줘!나가게 해줘!” 표범은 으르렁했어요.

“풀어줄까?” 아난시는 웃었어요.

“내가 널 잡기 위해 이렇게 고생했는데 그럴 수 있겠어?”

“이 나쁜 사기꾼!” 표범은 으르렁했어요.

“다 아난시 네가 한 짓인걸 알았어.”

하지만 아난시는 표범에 이야기에 신경쓰지 않았어요.

그는 조금 더 왕이 될 수 있는 날이 가까워졌어요.

P18)

아난시는 표범을 끌고 냐암에게 돌아갔어요.

“표범을 잡았어요!” 아난시가 노래불렀어요.

“내가 표범을 잡았어요!”

“하지만 뱀이 없잖아,” 라고 냐암이 말했어요. “그래서 넌 내 이야기를 가질 수 없어.”

P19)

“안돼” 아난시는 생각했어요.

“난 아직 뱀을 잡아야 해. 가장 위험한 동물 중에 하나인 뱀을 잡아야해. 나는 강하지도, 사납지도 않아. 그리고 난 용감하지도 않고...” 혼자서 말했어요.

6 과

P20)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이용할꺼야. 내 지혜와 영리함으로 그것들을 잡아버리겠어!”

아난시는 긴 대나무 막대기와 밧줄을 가지러 갔어요.

P21)

그리고 아난시는 혼자 말하고 웃으면서 뱀이 사는 집으로 걸어갔어요.

“더 길면서 더 힘이 센 것? 아니면 더 짧고 더 약한 것? 어떤거지?”라고 말하고 또 말했어요.

P22)

뱀은 웃고 말하고 있는 아난시를 보았어요.

“야!” 뱀이 불렀어요. “무슨 일이야?”

P23)

“난 네가 이 대나무 막대기보다 더 길고 힘이 센지, 아니면 더 짧고 약한지 알고 싶어.” 라고 아난시는 말했어요.

“그건 쉬워. 내가 더 길고 더 힘이 세거든.” 이라고 뱀이 말했어요.

“일단 대나무 막대기를 바닥에 내려놔. 그럼 확인할 수 있을꺼야.”

P24)

그래서 아난시는 대나무 막대기를 뱀 옆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아니야, 내 생각엔 네가 조금 더 짧은 것 같아.” 라고 아난시는 말했어요.

뱀은 화가 났어요. “내가 몸을 쪽 뺐으면 내가 더 길고 더 힘이 센 걸 알꺼야.” 라고 뱀은 말했어요. 그리고 몸을 뺐었어요.

25)

“있잖아.” 라고 아난시는 말했어요. “몸을 길게 뺐었을 때 너의 몸 윗부분 반은 더 길어지고, 너의 몸 아랫부분 반은 더 짧아져.”

“그럼 내가 움직일 수 없게 내 몸을 대나무 막대기에 묶어줘.” 라고 뱀이 말했어요.

P26)

“좋은 생각이야!” 라고 아난시는 말하며, 혼자서 웃었어요.

P27)

그래서 아난시는 뱀이 움직일 수 없게 대나무 막대기에 묶었어요.

P29)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대나무 막대기보다 더 길고 더 힘이 세다고.” 라고 뱀이 말했어요.

“아니야!” 아난시는 웃었어요. “너는 더 약하고 더 짧아. 그리고 너무 너무 멍청해!”

P30)

아난시는 뱀을 끌고 냐음에게 돌아갔어요.

“잡았어요!” 아난시는 노래 불렀어요. “내가 뱀을 잡았어요!”

“그렇구나” 라고 냐음은 말했어요. “그렇구나”

P31)

“약속을 지켜야겠지...” 라고 냐음은 말했어요.

“오늘부터, 모든 이야기는 너한테 줄거야. 그리고 넌 이제 이야기의 왕 아난시로 불리게 될거야!”

“이제 모두들 나에게 와서 내 얘기를 들어라.” 라고 아난시는 말했어요.
이렇게 해서 아난시는 이야기를 가질 수 있었어요.

다시 말하기를 위한 가이드

즐거리 이야기하기

- 아난시는 왜 세 마리 동물을 잡으려 했는지 아이에게 설명해 보라고 하세요.
- “아난시가 쓴 세 가지 속임수 중에 어떤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생각하니? 그 이유는?” 하고 물어보세요.
- “목적을 위해 아난시가 속임수를 사용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지?” 하고 물어보세요.

이야기 지도를 보며 즐거리 말하기

- 책을 다 읽고 난 뒤, 32 쪽에 나와 있는 이야기 지도를 이용하여 다시 함께 즐거리를 이야기해 보세요. 각각의 그림은 이야기의 주요 장면을 보여줍니다.
- 아이가 스스로의 표현을 사용해 이야기를 다시 말해보게 하세요. 아이와 함께 하거나, 또는 서로 번갈아가며 즐거리를 이어나가도 좋습니다.
- 세 가지 단어를 이용해서 인물이나 사건을 표현해보도록 도와주세요.

예) I will use my skill, my wit and my cleverness. 또는 He covered the hole with ss and twigs and leaves.

뒷 표지

아난시가 이야기의 왕이 된 사연

아난시는 모든 사람이 자기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기를, 또 자기를 존경해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먼저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만 해요.